

## 建築士의 本分

우리나라에서 建築士法이 制定되고 施行된지도 뒤늦긴 하였지만 벌써 年余의 歲月이 경과하고 있다.

建築士法 施行을 前後한 우리나라의 建設分野는 經濟的인 成長과 함께 눈부신 發展을 하였다.

날로 솟아오르는 都心地의 高層建物群이나 全國土로 뻗어나간 高速道路 周邊으로 展開되는 都市. 工場 港灣 등의 急速한 建設과 變貌相을 볼때 놀람기만 하다.

이와같은 雄壯한 產物들이 우리 建設人들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生覺할 때 그 一翼을 擔當한 建築人으로서 보람과 矜持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事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經驗하였고 배웠다.

莫大한 資産과 勞力을 要하는 建設工事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우리 建築士의 創意力으로 이루어진 設計로부터 出發되어 그 義務의 重大性和 責任感을 再三 느끼게 한다.

勿論 行政當局이나 建築主들의 올바른 계획과 理解가 必要하고 施工者의 훌륭한 技術과 장비가 갖추어져야만 所期의 完成이 可能하겠지만 建築士의 誠意있는 努力과 能力없는 보다는 合理的이고 아름답고 經濟的인 建設을 期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周圍에서는 남부끄럽지 않는 훌륭한 建築物들이 눈에 띄우기 始作하였다.

質的인 發展段階가 우리 建築界에도 到來한 것이다.

建築士 各者들이 建築主로부터 建築物의 設計를 依賴받으면 充分한 資料와 創意力으로 계획하고, 精密한 設計圖를 作成하는데 모든 誠意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 結果는 建築主가 意圖하는 훌륭한 建築物이 正確한 施工을 거쳐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建築士에 對한 信賴와 設計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一部の 建築士中에는 아직도 本分인 設計 業務 보다는 異常한 싸-비스 競爭에 더 充實하여 建築主로 하여금 남보다 값싼 설계비로 더 신속히 許可手續을 마쳐주는 것이 能力있는 建築士라고 錯覺까지 하게되어 善意의 同僚 建築士들에게 被害를 주는 경우가 많다.

一例를 들면 우리들(建築士)이 만든 設計報酬料率 기준은 도외시하고 坪當價格으로 값싸게 거래하는가 하면, 許可手續時 建築主들이 準備할 수 있는 각종 具備書類와 許可免許稅까지도 負擔하여 신속 처리하여 준다는 것이다.

勿論 設計를 충실히 하고도 時間과 熱이 남는다면 이런 過剩奉仕를 닦할리는 없을 것이다.

本分이외의 競爭이나 싸-비스는 建築物의 質을 低下시키고 建築士의 社會的 位置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마련이다.

各者의 良心과 反省으로 이와같은 不條理에서 脫皮하고 本분에만 충실하게 될때 明朗한 우리들의 장래는 期約될 것이다.